

제19회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에 붙여

이 종 옥

오는 10월 15-16일 양일간 2016년도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가 개최된다. 결식아동 돕기를 위한 이 바자회를 시작한 것이 엇그제만 같은데 어느새 19회째라니 세월이 무상하다. 이 바자회를 시작하던 때를 회상하면 내게는 몹시도 그리운 사람이 있다. 초대 '사랑의 친구들' 이사장이었던 고 박영숙 선생이다.

이희호 선생님께서 청와대의 안주인이 되신 직후 박영숙과 나를 청와대로 부르셔서 우리 둘은 난생처음 청와대 대통령관저를 기쁘게 찾았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생님과 셋이서 꿈만 같은 만남을 즐겼다. 짐도 채 도착하지 않은 행뎡그렁한 관저의 거대한 침실에 앉아서 다정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박영숙과 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희호 선생님이 훌륭한 김대중 대통령의 훌륭한 영부인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밖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까를 의논했다. 그 때 나왔던 안이 '결식아동 돕기 운동'이었다. 그 후 여러 과정을 거쳐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이 결성되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가을부터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가 열려 올해로 19회째를 맞게 된다.

나는 '5.17가족'들과 함께 또 내 남편을 비롯하여 며느리들과 딸 그리고 손녀들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첫 회부터 19회째를 맞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바자회에 참여하여 힘을 보태고 있다.

'5.17가족'이란 1980년 5월 전두환 일당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함께 고난을 겪은 분들의 가족들 모임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1980년 5월 17일 밤에 남편들이 중앙정보부(지금의 국가정보원)에 강제로 연행당한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매일 17일이면 '5.17가족'모임은 어김없이 열린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남편들이 겪은 아픔과 추구했던 가치들을 공유하고, 그 가치들의 성취를 위해 힘을 보태려고 애쓰고 있다. '5.17가족'들은 바자회며 떡국나누기 등 '사랑의 친구들' 행사에는 힘이 닿는 데까지 참여하고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세월이 참 무상하다. 일제강점기와 맞먹는 세월이 흐르다보니 혈육보다 더 짙은 정으로 영겨 살던 가족들이 하나 둘 유명을 달리한 아픔이 짙다. 바자회 초창기 열성을 다했던 박용길 김석중 박영숙 등 그 빈자리가 너무나 아쉽다. 특히 박영숙 선생의 부재는 내게 큰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박영숙 선생의 아이디어는 늘 신선하고 기발했다. 지난해 이희호 선생 일행의 북한방문 시 가지고 가셔서 전달한 다목적 목 토시 뜨개질도 박영숙 선생과 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박 선생은 1,000 여개에 이르는 목 토시를 손수 뜨개질 하셨다.

바자회에서 '5.17 가족'은 줄 곳 먹거리 팀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다. 한과에서부터 김치전 메밀전 어묵에 이르기까지 직접 만들어 판다. 박영숙 선생은 늘 어묵담당이었다. 돌아가시기 직전 해인 1912년 바자회까지도 박 선생은 극성으로 어묵을 팔아서 수익을 올려 결식아동 돕기에 힘을 보탰다. 어묵꼬치 만드는 기술습득을 위해 둘이서 재래시장들을 돌아다니며 어묵을 사먹던 기억이 엇그제만 같은데 그는 지금 볼 수가 없다.

내게는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와 얽힌 추억이 무척 많은데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많

은 국민들이 그의 돌아가심을 애석해 하는 고 김근태 의원과 얽힌 이야기다. 나는 손녀 셋이 있는데 지금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이다. 대학 3학년인 채운이가 유치원시절부터 바자회 날이면 어름에 채운 생수를 팔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 손녀들이 뒤를 이어 생수장사를 해왔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인 태연이가 유치원시절 고 김근태 의원이 귀엽다고 일부러 생수가 너무 비싸다고 놀리자 태연이가 그만 울어버리는 바람에 김근태 의원이 애를 먹었던 일이다.

아무튼 이번 19회 바자회도 모든 구성원들과 참여단체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성황을 이루기를 기원한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특히 해외 글로벌 회원들의 뜨거운 노고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깊이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모두 선하고 바른 삶을 향해 함께 가십시다.